

<서평>

제주도 지명 연구의 새 전기 마련

- 오창명의 『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』(1998, 제주대학교출판부) -

강 영 봉*

이 책은 제주대학교출판부 제주연구총서 제3권으로 나온 제주연구 시리즈의 한 권이다. 저자는 머리말에서 “부족한 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서둘러 이 책을 내게 된 것은 기존의 지명자료집이나 연구 자료에서 잘못 해석하고 설명한 부분이 적지 않아서 그에 따른 폐해를 염려하기 때문이다”라 그 조사 출간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. 사실 지금까지 제주 지명에 대한 연구나 자료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흠을 지니고 있었다. 그 원인 중의 하나는 비전공자에 의한 연구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데서 온 흠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. 『제주토속지명사전』(1992, 민음사) 남원읍 의귀리 지명에 ‘벨진-밭’을 <수군대의 남쪽에 위치. 별도로 진지를 구축하여 진을 쳤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.>(p.16)이라 설명하고 있다. 좀 나이든 어른한테 이 설명이 맞느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 아마도 “계매(글썩)”일 것이다.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듯이 적에게 노출될 까닭이 없다면 들넓은 벌판에 따로 진을 칠 필요가 있을까. 『남제주군固有地名』(1996, 남제주군) 안덕면 사계리(安德面 沙溪里) 지명에 ‘복병리(伏兵里)/황우산사(黃牛山寺)를 설명하며 <용머리 능선 일대를 일컫는 이름으로 적을 물리칠 목적으로 복병(伏兵)하던 길목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. 이곳에 작은 사찰이 있어 드물게 「황우산사(黃牛山寺)라고도 불리운다.>라 설명하고 있다(p.534). 그리고 나서 545면 ‘황우치’를 <이곳의 지형지세가 황우(黃牛)의 두각(頭角)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.>이라 설명되어

*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

있다. 얼른 보아도 앞의 ‘황우산사’와 이 ‘황우치’는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. 제보자에게 물어보면 같다는 것이 공통의견이다. 왜 이런 다른 해석을 냈았을까. 그것은 한자 ‘峙’를 분해해 ‘山’과 ‘寺’로 읽은 연유에서 비롯된다. ‘황우치’는 <물결이 용머리 바위에 부딪혀 생기는 물보라 곧 무지개>를 말한다. 절[寺]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.

기존의 자료가 이런 상황이고 보니 이 책의 가치가 더욱 값지다. 이 책은 오름과 마을 이름에 국한되어 있지만, 고문헌과 옛 지도의 표기·원어 민들에 의해 불리는 대표 음성형·제주어와 중세어를 바탕으로 한 해석으로 그 의미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.

오름 이름인 경우를 보자. 제주시 이른바 5·16도로 곁에 있는 ‘개오리오름’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. 대개는 물고기 ‘가오리’비슷하다는데서 왔거나 아니면 개가 달을 보고 짓는 모양이라 하여 ‘견월악’이라 부른다는 설명이 따르는 오름이다. 그러나 이 오름은 문헌이나 지도에 ‘表岳·竝五里·竝五里岳·竝岳·並岳’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. 이 표기들은 ‘글워리오름·굴오리오름·굴오리’ 등으로 읽을 수 있는데, 이는 중세어로 [竝]을 뜻하는 ‘굴픈’이나 ‘ㄱ른’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(pp.20~21). 사실 ‘쌍둥이’를 제주어로 ‘굴로기·굴레기·굴루기’라 하는 데서 알 수 있다. 이 오름은 봉우리가 둘이기 때문에 더욱 확증이 가는 것이다.

북제주군 애월읍(北濟州郡 涯月邑)에 있는 ‘켓물오름’도 마찬가지다. 지금까지의 자료집에서는 모두 ‘고양이’와 관련을 시켜 설명하고 있다. 그래서 한자어로 猫岳이라 했다. 그런데 이 오름에 해당하는 한자 표기를 보면 怪水岳·槐水岳·沆水岳으로 나타나 이 오름 이름이 ‘켓물오름·켓물바위’ 등으로 읽을 수 있다. 제주어로 ‘켓’은 <바위 굴>로, <켓에서 솟아나는 물>이 있어 붙은 이름이 된다(pp.85~6).

또 마을 이름인 경우를 보아도 마찬가지다. 북제주군 한림읍 상대리(北濟州郡 翰林邑 上大里)를 ‘중구실’ 또는 ‘중구술’로 읽거나, 그 뜻도 ‘果實’과 관련시키거나 ‘官奴의 稅額’으로 해석하기도 한다. 그러나 지도에 표기된 어휘들이 ‘召隱貴林里·召日貴林·召日古林·召貴林里’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간의 ‘隱·日’字로 볼 때, ‘존귀술·존고술’ 정도로

읽을 수 있다('썌'는 '쇼>소'로 읽을 수도 있고 '쨌>조'로 읽을 수도 있다. 여기서는 후자로 읽어야 한다). 이는 지금까지 '중'으로 읽었던 것을 '존'으로 읽는데 성공하고 있다(p.339~40). 물론 '존귀술·존고술'에서의 '존귀·존고'의 뜻은 확실하지 않으나, 나중의 '술'은 수풀[藪]을 의미하는 語辭다.

몇 예에서 보듯 바른 해석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다면 한자어에 신중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기도 한다. 북제주군 우도면(北濟州郡 牛島面)의 경우는 네 개의 마을 이름 가운데 두 개가 잘못 되어 있다. 곧 朔日里가 照日里로(p.438~9), 五逢里가 五峰里(p.439)로 표기되어 있는데,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(행정 구역 명칭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), 그 출전을 밝혀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.

그러나 곁에서 지켜보면서 참으로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었는데, 몽골에 1년 파견 나간 사이에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책을 낸 것만큼 기쁨과 희열을 맛본 바 있다. 발로 쓴 책이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는 또한 대단해 이용자에게 덧없는 동반자가 되리라 확신하며, 책상머리에 두고두고 보면서 기증자의 정성과 노고에 값하려 한다.